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3.03(금) ~ 2023.03.09(목)

제공일시 2023 03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3.03(금) ~ 2023.03.09(목)

제공일시 2023 03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특정 녹색산업지원 새로운 규칙 제안

- 유럽연합이 특정 전략적 녹색기술에 대한 허가, 규제 지원, 공공 및 민간자금 조달을 해주기 위한 작업 초안을 작성했다
- 이는 EU가 미국 IRA에 대한 자국버전을 실행하는 것으로, 8가지 지원기술은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육상 및 해상풍력, 열펌프 및 지열에너지, 재생수소, 바이오메탄, 핵분열 및 그리드기술 등임
- 여기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는 잠재적 후보로 분류돼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미국의 IRA법안에는 SAF 지원이 포함되었음 초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유럽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함

(Reuters, 2023.03.04) Joanna Plucinska 기자

2. 올해만 새 규제 43개... EU發 ‘환경 장벽’이 몰려온다

- 현지 업계에 따르면 EU가 올해 도입을 추진하는 신규 규제만 43개에 이릅니다
- 명분은 기후 위기 대응이지만, 속내는 역내 산업 보호라는 진단임 탄소국경조정제도, 플라스틱세, 공급망실사지침, 지속가능성공시지침, 에코디자인규정, 신배터리규정 등이 대표적임
- 정정민 포스코 브뤼셀 사무소장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26년에는 피해가 수백억원 수준이겠지만 매출 감소는 해마다 늘어 수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음
- 플라스틱세 또한, 지난해 영국에 이어 올 들어 스페인도 시행에 들어갔으며, 공급망 실사지침도 올 하반기 시행 예정임

(조선일보, 2023.03.07) 조재희 기자

3. 유럽연합, 獨 요청에 ‘내연기관 금지법’ 투표 연기

- 유럽연합(EU)의 연소 엔진 차량 금지를 위한 투표가 연기됐음
- EU는 독일이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2035년 단종 이후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존 보장을 요구하는 등 EU의 녹색 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투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 볼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은 최근 집행위가 2035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법안을 내놓지 않으면 3자 협상 결과를 승인하는 표결에 불참할 것을 예고하여 법안이 잠재적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음
- 이에 EU와 독일 정부 측에서는 2035년 이후 전자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으며, 만약 단계적 폐지가 진행될 경우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됨

(지피코리아, 2023.03.07) 김미영 기자

1. 한전 “4월 PPA 요금제 시행 전 의견 수렴해 개선방안 마련”

- 한국전력공사가 올 4월 기업·개인 고객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위한 전용 전기요금 제도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산업계에서 전기사용 비용 부담이 늘어나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한전은 지난해 PPA 전용 전기 표준요금 제도를 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는데, 대한상의는 이 요금제가 전기 사용자 입장에서선 비용 부담이 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음
- 대한상의는 대기업을 기준으로 매년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60억~100억원의 요금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한전은 PPA 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전기를 공급하려면, 한전이 송·배전망 건설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PPA 전용 요금제의 기본요금 인상 등 요금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4월 PPA 전용 전기요금제 시행 전까지 산업계 등 고객 요구를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음

(이데일리, 2023.03.04) 김형욱 기자

2. 정부, 첫 수소발전 입찰 물량 1300GWh로 확정…수소 사업 탄력

- 정부가 올해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 물량을 1300GWh(기가와트시)로 확정했음
- 수소발전 입찰 시장 제도는 지난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 전략 과제로, 이번 결정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수소 생산, 유통·저장, 활용 등 수소 업계 전 단계에 걸친 투자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7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수소발전 입찰 시장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3년~2025년까지 3개년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확정했음 정부는 올해 2025년분 일반 수소발전 개설 물량을 1300GWh로, 2024년에는 2026년분 일반수소 1300GWh, 2027년분 청정수소 3500GWh를 입찰함
- 2025년에는 2027년분 일반수소 1300GWh, 2028년분 청정수소 3000GWh 물량을 개설하고 설비용량은 200MW(메가와트) 기준으로 설계하면서 연료전지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됨

(조선비즈, 2023.03.07) 박성우 기자

3. 발표 앞둔 ‘탄소중립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기나…산업②

-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이르면 오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수립·발표할 계획임
- 발표를 앞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10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연도별 감축 경로 등이 담길 예정이며, 이중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얼마만큼 수용한 이행계획이 나올지가 관전포인트로 지목됨
- 산업계는 탄녹위와 환경부에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등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음
- 그러나 정부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목표치 수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기존 목표는 유지하되, 산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완급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전기신문, 2023.03.08) 오유진 기자

1. 티센크루, 세계 최대 26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공장 건설

- 독일 최대 철강사 티센크루프는 SMS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60만 톤급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건설함
- 티센크루프는 독일 SMS그룹과 EPC(설계, 구매,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 서부,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뒤스부르크에 수소환원제철 공장의 부지 정지작업에 돌입했음
- 수소환원제철 공장 건설에는 총 18억유로(약 2조4855억 원)가 투자됨 2026년 완공 예정이며, 티센크루프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독일 최대 철강기업의 기술적 전환점이라고 밝혔음
- 티센크루프는 직접수소 환원철 공장을 통해 연간 350만 톤(기존 20%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과 기타 지역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됨

(글로벌 이코노믹, 2023.03.07) 김진영 기자

2. 국경 초월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 덴마크서 시작

- 세계 최초로 국경을 초월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장하는 프로젝트가 덴마크 근해의 고갈된 유전에서 시작됐다고 윈터셀 데아 및 INEOS가 밝혔음
- 이는 ‘그린샌드 프로젝트(Greensand project)’로 불리는데, 2030년 최대 8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벨기에와 덴마크는 지난해 연안 영구저장소에 탄소포집을하기로 하며, 국경을 넘는 탄소 수송에 관한 양자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음
- 이미 여러개의 탄소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가 계획되어있고, 노르웨이 또한 국경 초월 탄소운송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윈터셀 데아는 2040년까지 연간 2000만-3000만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Reuters, 2023.03.09)
Seher Dareen, Fahul Paswan 기자

3. 영국도 수일 내 새로운 CCS 지원 발표

- 에너지포럼인 세라위크에서 영국 그레이엄 스튜어트 에너지안전보장 및 넷제로장관은 “영국 정부가 수일 내에 온실가스 저장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밝혔음
- 영국은 2030년까지 2000만톤~3000만톤의 CCS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 바이든 정부는 DAC 기술을 사용, 4개의 탄소허브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캐나다 또한 지난해 향후 5년간 26억캐나다달러의 탄소포획 투자세액 공제를 발표한 바 있음
- 영국의 BP, 노르웨이 에퀴노르, 이탈리아 에니 등이 지난해 영국의 첫 CCS라이선스 입찰에 참가했음

(Reuters, 2023.03.10) Ron Bousso 기자

1. SK, 美 탄소 포집·저장기업 경영권 인수

- SK(주) 머티리얼즈가 미국의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업인 8rivers의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밝혔음
- SK(주) 머티리얼즈는 지난해 1억달러를 투자해 8rivers의 지분을 12% 확보한 뒤, 올해 7월까지 추가로 3억달러를 투자했음
- 8rivers는 CCUS 기술을 활용해 탄소 배출이 99% 이상 저감된 전기와 블루수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SK(주) 머티리얼즈는 북미를 중심으로 8rivers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탄소 저장 공간을 보유한 아시아 국가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임

(매일경제, 2023.03.07) 송민근 기자
(머니투데이, 2023.03.07) 김도현 기자
(서울경제, 2023.03.07) 박민주 기자

2. 현대엔지니어링,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수소 생산한다

-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동서발전과 ‘재활용 플라스틱 자원화 통한 수소생산 및 수소 활용 연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음
- 양사는 ▲재활용 플라스틱 자원화 수소 생산사업 ▲수소 활용 연료전지 발전사업 ▲수소 및 암모니아 통한 발전연료 활용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함
- 이외에도 ▲풍력, 지열, 태양광발전, 소형원자로 발전사업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사업 ▲해외 그린수소, 암모니아 사업개발 및 터미널 구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음
- 현대엔지니어링은 자체 신사업인 재활용 플라스틱 자원화 사업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한국동서발전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한국동서발전은 공급받은 수소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뉴스트리, 2023.03.03) 이재은 기자

3. 한화큐셀, 발전량 예측사업 개시...전력 계통 안정성 강화

-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사업을 지난 1일 개시하며, 국내 분산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
- 한화큐셀은 예측사업에 참여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정확도 높은 예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한화큐셀은 모집한 발전소의 발전량을 하루 전 예측해 전력거래소에 제출,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받아 발전사업자들에게 분배할 예정임
- 예측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은 전력 판매 수익 이외의 추가 수익을 확보하고, 전력거래소 등은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지디넷코리아, 2023.03.08) 이한열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3.03(금) ~ 2023.03.09(목)

제공일시 2023 03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대한상의 자발적탄소시장 개설, 한국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첫걸음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올해 하반기에 자발적탄소시장(VCM)을 개설할 계획을 밝힘.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달리 민간 주도로 시장 가치에 따라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자발적탄소시장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음
- 전 세계 자발적 탄소감축 성과는 2018년 1억6600만톤에서 2021년 3억6600만톤으로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음. 자발적탄소시장 거래 금액은 이 추세에 따라 5억2000만달러(약 6846억원)에서 2021년 19억 8500만달러(약 2조 6148억원)로 281.7%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이런 흐름에 따라 국제금융공사(IFC)는 지난해 8월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의 출범도 발표한 바 있음
- 한국은 VCM이 이제 막 상륙하고 있는 초기 단계임. 국내에서도 아오라, 팜플과 같은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이 비영리단체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등장했으며, 대한상의도 이런 흐름 속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 자발적탄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탄소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인증하여 변환하는 작업임 해외에서는 베라와 골드스탠다드와 같은 인증업체가 있는데 한국은 별도의 인증업체가 없었음. 그래서 한국의 기업이 탄소감축 성과를 크레딧으로 인증받으려면 이런 해외 인증기관을 거쳐야 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의가 인증업체가 되기 위해 나섰다. 대한상의는 지난 1월 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평가해 감축성과를 인증할 목적으로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설립한 바 있음. 대한상의는 3월 중으로 탄소배출권 인증사업을 시작하여, 한국의 베라와 골드스탠다드가 될 계획임
- 대한상의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 7일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음. 응답 기업의 66.8%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음
- 기업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46.3%)하고, 정부 주도의 규제시장을 보완하는 수단(40.6%)을 자발적 탄소시장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음. 그 외에 기후테크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7%)과 친환경 투자를 유도(6.1%)하는 역할도 제시됐음
-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0%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탄소 감축제품·기술·서비스 개발 및 판매 까지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들이 감축실적을 인증받길 원하는 이유로는 ‘탄소중립 달성’(45.0%)과 ‘ESG 활동 홍보’(4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상쇄배출권 확보’(26.2%),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및 대응’(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정부 지원과제로는 ‘배출권거래제 연계’(35.8%)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국가 감축목표(NDC)와의 연계’(28.4%), ‘자발적 탄소시장 운영지침 마련 등 신뢰성 확보’(21.8%) 등으로 조사됐음. 반면, 자발적 시장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민간 주도 시장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14.0%였음
-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대한상의는 정부, 전문가, 업계, NGO 등과 협력해 신뢰성 있는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한국을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심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말했음. 대한상의는 앞으로 ‘한국형 탄소감축인증표준’을 유엔이 운영하는 국제항공부문 탄소상쇄감축협약(CORSIA) 등의 국제 기준에 등록하여 크레딧 신뢰도를 보장할 계획임
- 한편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와 대한상의는 지난 8일 수요일 ‘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동향 및 국내 활성화 방향 논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음.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해외 정부의 정책 현황과 탄소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음

(인팩트는, 2023.03.09) 송준호 기자

(인팩트는, 2023.03.09) 김환이 기자

- 기업들이 자발적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향도 논의됐음. 현재 기업들은 공정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전환, 재생에너지 등 직간접 감축 활동을 하고 있지만 탄소 감축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토론자들은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발적 탄소 시장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음
- 세미나에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탄소 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이 세팅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 선진 사례처럼 우리도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시장의 룰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음